

2022 추석 가정예배

*영상에 따라 함께 예배드리시면 됩니다

예배순서

예배인도: 허요환 목사

목도

인도자

찬송

----- 넓은 들에 익은 곡식(589장) -----

다같이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 하도다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후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 합시다

3.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아멘)

4.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들인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참여 하겠네

성경봉독

-----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

인도자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설교

----- 더욱 감사 -----

허요환 목사

축도

허요환 목사



[추석예배 설교문]

더욱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성경 말씀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백하게 밝히는 말씀이 몇 구절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헌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추석에 함께 모인 가족들과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이 말씀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은 경우 개인의 경건생활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으로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본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말씀이고, 동시에 함께 모인 가족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함께 모인 가족들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족이라고 선언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주어진 순서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기쁨이 먼저이고, 기도가 그 다음이며, 마지막에 감사가 따라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흥미롭게 읽은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책인데, 책 제목에 끌려서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상하리만치 기쁨이 없다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기쁨, 예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계십니까? 연봉이 올라가고, 자녀의 명문대 입학이나, 취업의 성공이나, 건강 회복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합니다. 당연히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따라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의무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머무르는 기쁨을 억누르지 못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게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런 기도의 일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여 쉬지 않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기도의 장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기쁨과 지속적인 기도는 자연스럽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 기쁨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다 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나는 일도 감사, 눈물을 닦아주심도 감사, 병을 고침 받아도 감사, 병 고침이 더디어도 감사, 취업에 성공해도 감사, 취업이 실패해도 감사, 그저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들 모두 이런 고백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